

갈맷길 4-1 구간

☞ 13km/4시간, 남항대교~송도해수욕장~송도해안 볼레길~암남공원 입구~감천항

01. 부산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와 관련된 역사는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 성종 임금은 여러 학자들에게 전국의 풍수와 지리를 조사하도록 어명을 내렸다. 부산포 일대를 둘러본 지리학자들은 1481년 편찬된 풍수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에 이렇게 기록했다.

'부산은 동평현(당시는 오늘날 당감동 지역이 중심지였음)에 있으며 산이 가마꼴과 같으므로 "釜山이라고" 이름하였는데 나지막한 산이 바다를 끼고 있어 그 모양이 마치 가마꼴과 같다'

그 후 기록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부산(釜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가마꼴과 같이 생겼다는 산은 어느산을 말하는 걸까? 지리학자들이 본 곳은 지금의 부산항을 끼고 있는 좌천동의 증산인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당시 증산은 부산이라는 이름처럼 산봉우리가 마치 가마솥 뚜껑처럼 우뚝 솟은 모양이어서 가마솥 부(釜)자를 써서 부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임진왜란당시 부산진성을 점령한 왜국이 성을 하나 더 만드려고 꼭대기를 깎아내 떡시루처럼 편평하게 되었고 이름도 부산에서 시루 증(甑)자를 써 증산이 되었다고 한다.

02. 서구

서구에 언제부터 사람이 거주하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신석기 말기에는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구라는 명칭은 해방 후에는 1951년 구제 실시를 전제로 6개의 출장소가 설치되었는데, 당시 중앙동에 소재했던 부산시청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서부출장소西部出張所가 설치되었고, 그 후 1957년에 비로소 구제를 변경하면서 서구西區로 발족하였다.

빠어난 산세와 푸른바다, 사철 온화한 기후, 후덕한 인심을 가진 고장으로, 개항과 더불어 근대적 시가지를 형성하였으며 한국 전쟁 중에는 대한민국 임시 수도 역할을 수행했다. 또 부산의 행정, 교육, 법조, 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법원, 학교 등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기능이 다소 침체 되었지만 최근에 송도연안정비, 감천항 개발, 꽃마을 종합개발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으며, 수산업과 관광특화도시 푸른빛이 아름다운 쾌적한 주거도시로 탈바꿈 해가고 있다.

03. 암남동 지명유래

부산광역시 서구에 있는 동. 면적 3.07km², 인구 2만 3962명(2001)이다. 암남반도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천마산(324m) 남쪽 기슭에서 해변까지의 송도松島가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암남동의 동명을 과거 동래군 사하면 암남리에서 유래한 듯한데, 암남은 아미동의 유래가 된 아미골의 남쪽이란 의미에서 붙여졌다.** 또한 이 곳 암남동에는 으뜸인 마을로 주위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송도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송도는 행정상 암남동에 속하는데 외지인들에게는 암남동보다 송도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은 송림이 울창하고 전망이 좋고 도심지와 가까워서 산책인구가 많은 곳이다.

송도가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관광지로 개발된 것은 1913년 무렵이다. 일본인들이 송도유원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곳에 수정水亭이라는 휴게소를 설치하고,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였다. 송도해수욕장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해수욕장이자 관광지이다. 해수욕장 동쪽 앞바다에는 섬의 모양이 거북과 닮은 바위로 된 거북섬이 있다. 암남동에는 고신대학교 송도캠퍼스와 부속병원인 고신의료원이 있고, 혈청소血清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가 암남공원 내에 있다. 암남공원은 암남반도 끝에 있는 자연상태의 공원으로, 해양성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04. 남항대교와 남항

서구 암남동과 영도구 영선동을 연결하는 길이 1,941m의 해상교량으로, 2008년 7월 개통됐으며 총 사업비 3,55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남항대교의 개통으로 부산신항과 녹산공단, 명지대교, 남항, 북항, 광안대로, 수영대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항만배후도로의 틀이 갖춰졌다. '신세기를 열어가는 관문'을 주제로 한 경관 조명도 볼거리다.



〈남항대교〉

그리고 다리가 놓인 후, 교류가 거의 없었던 서구와 영도구가 교차 견기대회를 하는 등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남항은 한국 조선 산업의 산실이며, 영도구 대평동 일대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성업한 수리조선소 및 창고 건물이 즐비하다.

05. 송도의 유래

송도(松島)는 지금「거북섬」을 가리킨다. 지금은 송림공원의 연맥連脈이지만, 이 섬은 낮고 작은 섬이긴 해도 맞은 편의 장군산 끝에 있는「두도」처럼 소나무가 그 섬에 자생하고 있어 송도라 불렸다. 일제강점기 송도를 중심으로 일본 거류민들이 송도유원주식회사를 설립(1913. 7)하고 송도에「수정(水亭)」이란 휴게소를 설치하면서 송도의 실체는 허물어지고 바위만의 거북꼴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거북섬에는 둘레에 남은 반석으로 옛날의 윤곽을 더듬을 수 있지만, 일본인이 지금의 거북섬에 수정을 짓고 넓은 백사장을 이용하여 해수욕장을 개발하자, 넓은 백사장과 잔잔한 물결, 얇은 수심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송림은 전국 명소인 해수욕장이 되었다. 지금은 먼 옛날의 경치와 송림, 백사장은 개발이란 이름아래 송도라는 옛 섬의 자취는 없어지고 그 이름만 전할 뿐이다.

06. 송도해수욕장 국내호 공설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은 부산의 남쪽 암남반도의 일부에 바다가 오목하게 만(灣)을 형성하면서 형성되었다. 흰 모래가 연이어 파도가 조용하고 물 또한 깊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의 자연 풍광도 뛰어나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최근 해안도로변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펼쳐 해마다 반복

되던 태풍피해의 방지와 더불어 사계절 해안 관광지로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부산에는 해운대를 비롯하여 광안리, 송정, 일광, 다대포 등 많은 해수욕장들이 있지만 1920년대 초반까지 부산에서 대중적으로 해수욕을 즐기던 곳은 매죽되기 전(1930년부터 자갈치 해안 매죽을 시작함) 자갈치 해안인 남빈해수욕장이 유일하였다.



〈송도해수욕장 전경〉

일제강점기인 1913년 당시 부산지역 일본인 민간 유지들이 협력하여 시민들의 행락지로서 일대 유락지를 건설해 송도유원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요정, 여관, 해수탕 등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용두산을 중심으로 시가를 이루고 있었던 당시로서는 송도로 가는 길이 지금의 천마로인 송도 윗길이 유일하였는데다 따로 일반 대중교통이 없던 시절이어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아 초기에 투자한 송도유원지(주)로

서는 많은 애로를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송도해수욕장이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은 이용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띠게되어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찾게 되었다. 이에 당시 부산부에서는 해수욕장에 휴게소, 탈의장 및 잔교 등 여러 설비를 갖추고 또 여름철 욕객浴客의 왕복에 편의를 위해 매일 1시간마다 발동기선을 운항하면서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무더운 여름철에는 하루 이용객이 무려 20만을 헤아렸다. 당시 부산부 인구가 15만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산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해수욕을 즐겼던 것을 생각하면 당시 송도해수욕장의 인기는 오늘의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과 비교가 안될 정도였다.

송도라는 지명은 만 입구에 하나의 작은 반도가 있어 이것을 옛날에는 야망대夜望臺라고 불리었는데 이곳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풍운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

1920년대에는 송도와 시내를 잇는 부산 최초의 신작로인 송도로 가는 윗길(지금의 천마로)이 생겼고, 1939년에는 남항일대가 매립되어 송도로 가는 아랫길(지금의 충무로)이 생겼으나 그 길은 지금의 남부민방파제 인근까지 밖에 연결되지 못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지금의 송도 아랫길이 연결되어 이후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1964년에는 거북섬에서 해수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420m)와 송림공원에서 거북섬으로 건너가는 구름다리(150m)가 설치되어 송도의 명물로 등장하였으며, 연인들과 신혼부부들이 즐겨찾는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해안주변 개발의 가속화로 모래유실이 계속되고, 게다가 송도해수욕장으로 연결된 생활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수질은 점점 악화되어가고 더욱이 케이블카가 셀마태풍의 영향으로 파손.철거되는 등 태풍과 해일의 피해가 반복되어 해수욕장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져 갔다.

이에, 송도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5년간 전국 최초의 송도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재단장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국 최초의 해상조각 작품인 고래조형등대를 설치하였고, 고(故) 현인선생을 추모하는 현인광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8월에는 신인가수 발굴을 위한 전국단위의 「현인가요제」를 비롯한 송도바다축제를, 정월대보름날에는 「송도달집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관광 축제도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앞으로, 송도해수욕장은 송림공원 재정비 등의 관광테마공간 조성 and 오션파크 조성사업 등 송도마린벨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다.



〈1926년 송도해수욕장 전경〉



〈1929년 부산그림지도에 나타난 송도유원지〉

07. 덕성관

1940년대에 건축된 덕성관德成館은 송도 해변의 2층짜리 흰색 여관으로, 이 곳은 1960년 부산군수기지사령부 초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찾던 곳으로 유명하다. 1959년 9월 사라호 태풍으로 옛 기와집이 사라져 버려, 그해 가을 지금의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섰으며, 60~70년대에 송도해수욕장의 전성기를 맞아 덕성관도 번성하였다.



〈덕성관〉

박 전 대통령이 관광호텔을 지어주겠다고 제의했지만, 당시 사장인 히사코씨는 한사코 거절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08. 암남공원

암남공원(면적 55만㎡)은 1972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군사보호 구역으로 묶여 37년간 밤 9시 이후 야간 통행이 금지되었으나, 2006년 빗장이 풀려 가파른 절벽에 철제 계단과 난간을 놓아 애당초 없던 길을 새로이 조성하여, 천혜의 바다 풍광과 어우러진 해안길이 되어, 부산의 대표적 해안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암남공원 해안선 일대에서는 공룡의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암남공원〉

지질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서 공룡발자국 비슷한 흔적이 있음을 알아냈다. 이 흔적 이외에도 암남공원 일대에 공룡이 살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공룡골격과 알껍질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또 하나 암남공원 일대 퇴적층 '다대포층'이 공룡시대를 증언한다. 퇴적층 안에 포함된 백악기 캘크리트층은 공룡화석시대의 주토양층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공룡화석은 부산의 송도, 경북 의성·군위, 경남 하동·진주·사천 등 범람원 지역의 고토양층에서 발견되었다. 암남공원 다대포층이 퇴적될 당시의 기후는 온난 건조하면서 건·우기가 반복되었다. 시루떡을 잘라놓은 듯한 붉은 퇴적층은 공룡시대 부산의 지질 역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암남공원 일대의 공룡들은 공룡엑스코가 열린 고성 상죽암까지 활개를 치며 걸어 다녔으리라.

암남공원 일대 해안의 절벽과 바위가 빚어내는 빼어난 절경도 놓칠 수 없다. 1억년 전 비바람의 풍화·침식작용으로 절벽 바위에 10여개의 해식동굴이 만들어졌다. 이곳에서 삶을 일군 어부와 해녀들은 해식동굴마다 재미난 이름을 붙였다. 용굴은 용이 살았다고 해서, 코굴은 사람의 콧구멍 같이 두개의 굴이 나란히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파도가 높을 때 용이 승천하는 듯해서 붙여진 용바위도 있다.

암남공원 산책로는 태고의 신비감이 묻어나며, 기암벼랑에 솟은 밀림 숲의 흙길은 걷기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으며, 바다 조망이 가능한 망루 3개와 2002년 부산비엔날레에 전시됐던 대형 조각물 11점이 볼거리이다. 암남공원은 약1억년전에 형성된 퇴적암과 원시림, 100여종 야생화와 370여종의 식물 등 도심에서 보기드문 자연 생태가 군락을 이루고있는 원시 자연공원이다.

09. 시인 천상병 일화

송도 일원에는 시인 천상병(1930~1993)에 얹힌 기행과 일화가 전해지는데, 천상병은 일본에서 태어나 서울대에서 수학했으며 1949년 문예지 '갈매기'를 통해 등단한 뒤, '귀천',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등의 시집과 책을 남겼다.

1960년대 부산 송도 암남포구와 자갈치를 왕복하던 도선(渡船)은 천상병의 '호화 요트'였다고 하며, 내리고 다시 타지 않는 이상 뱃삿은 한번만 주면 끝으로, 천상병은 이 도선을 자주 이용하며 가끔씩 뱃머리에서 돌연 황제가 된 듯 '진격 신호'를 내리는 등의 의기양양한 행동으로 지역문단에서 화제를 낳았으며, 시인은 이 곳에서 시상을 구상하기도 했다.

서울에 거주한 천상병은 부산의 문인들과도 교류하면서 틈만 나면 부산에 내려와 아무데나 죽칠 만큼 부산과도 인연이 깊다.

10. 혈청소(血清素)

혈청소는 서구 암남동 620-20번지 현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를 일컫는 말인데 부산 사람들은 검역소보다 혈청소라는 이름이 더 귀에 익어있다. 이곳은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총독부시설 1918년 수역혈청水域血清 제조소를 직할하던 곳을 명칭하여 혈청소라 불려왔다. 해방 후 1949년 이곳에 부산가축검역소를 설치하였다. 그 후 1962년 국립동물검역소로 개칭되었다가 1979년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26년 총독부 혈청소 전경〉

11. 모지포 마을(자연마을)

모지포 마을은 서구 암남동 620-20번지 12통 일대, 송도 서남방에 돌출한 반도 끝 국립 동물검역소(옛 혈청소)의 동북쪽 해안통에 조성된 마을이다. 마을앞 포구를 모짓개(毛知浦, 沒稚浦)라 하여 마을 이름도 모지포(모짓개) 마을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마을 사람들 주장은 다르다.

옛부터 이곳 마을 앞바다는 송어가 다니는 길로 송어어장이 형성될 때면 '모찌'(송어새끼의 일본식 이름)가 지천으로 많이 잡힌다고 포구와 마을을 모찌포라 불렀으며 한자로 모지포毛稚浦라 썼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아온 곳이다. 영도에 절영진이 설치되었을 때(1881~1895)는 절영도 국마장의 말을 이곳으로 옮겨 오기도 하였다. 모지포 마을의 남동쪽 500m 떨어져 있는 바다위에 무인도인 두도(頭島, 일명 대가리섬이라고도 부른다, 암남동 702번지)가 있다. 섬의 면적은 19,080m²이며, 높이는 59m이다. 또한 무인등대가 설치되어 항해하는 선박의 길잡이가 되고 있으며, 1972년 12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섬에는 다양한 초본류와 팽나무 등 활엽수가 자생하고 있어 환경 조건이 육상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새들이 살기에 적합하다. 갯이갈매기 등 약 7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흔히들 이 섬을 갈매기가 주종을 이루어 많이 서식한다고 하여 갈매기의 천국이라 일컫고 있다.

12. 송도마을(자연마을)

송도 마을은 암남동 장군반도 동북쪽 송도만에 위치한 자연마을이다. 이곳은 송림松林이 우거져 송도라 불렸으며 송림이 우거진 주변 해안마을을 송도 마을이라 하였다. 이 어촌마을은 1913년 부산에 거류居留하던 일본인들이 송도유원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수정水亭이라는 휴게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면서 부산의 명물 해수욕장으로 이름나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 회센터를 비롯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한때(1964~2002) 육지와 거북섬까지를 잇는 구름다리와 케이블카(2002년 5월 24일 철거)가 운행되는 등 해수욕장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모래가 유실되면서 해수욕장으로의 기능이 떨어져 인기가 매년 감소되다가, 서구청에서는 2005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하면서 송도연안개발 사업을 벌여 해안 친수공간을 새로이 조성하고 해수욕장의 면모를 다시 찾아가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곳을 송도라 부른다. 이곳 앞바다에 있는 거북섬(龜島)은 암남동의 송도해수욕장 동쪽 앞 바다에 있는 바위섬으로 섬의 모양이 거북과 닮은 데서 붙여진 섬이다. 섬의 면적은 3,129m²로 북쪽으로 소나무로 뒤덮힌 송림공원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해안의 절경 때문에 거북섬 주변의 송도는 1931년 일본인들에 의해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었으며, 2002년까지만 해도 송도 서쪽 산언덕에서 이어지는 케이블카와 송림공원에서 놓인 구름다리로 인해 이곳이 전국에서 유명한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한때 거북바위 위에 음식점이 난립하여 경관을 어지럽히기도 했으나 지금은 철거하여 옛 모습을 찾았다. 송도에서 바라다보는 남향 앞바다의 야경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암남공원을 비롯하여 이곳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여류시인 모윤숙(毛允淑, 1909~1990)의 별장이 송도탑스빌 앞에 있었고, 길 건너에는 한국전쟁 임시수도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미진별관(암남동 212번지, 소유주 오복근)터에 잠시 머물며 집무하였던 '미진별관 1,000일' 시대를 열었던 곳이기도 했으나 1990년 고신의료원 진입로를 크게 확장 개설할 때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말았다. 이때 일본인이 만들어 세웠던 엄청 큰 바위의 송도개척비도 깨어서 없어지고 말았다고 아쉬워한다.

13. 송도해안산책로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800m, 폭 1m의 송도해안산책로는 편도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산책로를 걸으며 수많은 배들이 닻을 내린 아름다운 송도 연안과 1억 년 전 퇴적암으로 형성된 암남공원의 절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좋다. 또한 남해안 수평선 너머를 조망할 수 있는 세 군데의 전망대, 재밌는 흔들다리, 산책로 아래의 낚시터 등이 산재해 있어 해안산책로는 암남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 두도



암남반도 서남쪽으로 500m 떨어진 섬으로 면적이 19,080㎡이고 동백나무·해송 등이 자생하고 있는 이 곳은 1972년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섬은 육지와 가까워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무인등대가 설치되어 항해하는 선박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위에는 바닷새들의 둥지로 이 섬을 흔히들 갈매기의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암남공원에 가면 손을 뻗치면 닿을 듯 작고 평화로운 섬 두도가 펼쳐져 있다.

15. 거북섬



섬의 모양이 거북과 닮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암남동 129-4번지 송도해수욕장 동쪽 앞바다에 있는 바위섬으로 면적은 3,129㎡이다. 북쪽으로 소나무로 뒤덮인 송림공원과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이 있다.

이런 해안절경으로 거북섬은 1913년 일본인들에 의해 송도해수욕장이 개발되면서 유명하게 되었다. 서쪽 산언덕에서 이어지는 송도의 명물 케이블카와 송림공원 앞에서 섬을 잇는 구름다리(출렁다리)는 송도를 찾는 이에게 낭만과 추억의 명물로 기억되는데, 케이블카는 멈춰서 없어진지 오래며 구름다리는 2002년 새로운 연륙교가 세워지면서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매년 여름 태풍의 피해가 반복되었던 거북섬 위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이제 다 정비되어, 2006년이면 이 곳은 현재의 송도연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송림공원과 함께 해안 친수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송도관광지의 옛명성을 되찾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6. 송도이야기...



해수욕장 오른편의 거북섬에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송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 1910년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자 부산으로 이주해 오는 일본인이 많아 지면서 송도를 유원지와 겸한 해수욕장으로 삼으려고 **일본거류민이 송도 유원주식회사松島遊園株式會社를 설립하고, 지금의 송림공원 건너편에 있던 송도(현재의 거북섬)를 허물고 1913년 수정(水亭)이라는 휴게소를 설치하여 바다기슭의 사장을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였는데, 이 것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 개발된 해수욕장이자 관광지로 유명해진 이유이다.**

광복 후와 6.25전쟁 후는 도시가 팽창하여 관광객도 불어나고 해수욕장 주변으로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많이 들어섰으나, 바닷물이 오염되고 백사장 이 좁아들어 해수욕장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자 뱃놀이와 생선회를 즐기는 유원지로 바뀌어 갔다.

송도라고 불린 섬에 세워졌던 '수정'이라는 휴게소는 바위 위의 건물로써, 세찬 해풍으로 인해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고쳐 세우는 과정에서 섬이 깎여 들어 바위만의 텃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거북모양으로 낮아져 이름도 거북섬으로 바뀌었다.

1964년 4월에는 거북섬과 해수욕장 서쪽 산언덕을 잇는 420m 거리의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뒤이어 송림공원에서 거북섬으로 건너가는 줄다리가 설치되었는데, 이후 케이블카와 구름다리가 철거되기까지의 20~40여년간 송도의 명물로 이 곳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해수욕장 동쪽의 노송이 우거진 언덕은 송림공원 또는 송도공원이라 하는데 이 공원은 바다바람을 쏘며 바다경관을 즐기며 휴식하는 유원지로 손색이 없었다.

17. 장군산(152m)

천마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등성이가 대한해협에 몰입하여 형성된 암남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구룡산지의 특색을 지니고 있는 장군산은 산림으로 뒤덮여 있는 데다 남쪽으로 멀리 대한해협을 넘어 쓰시마를 바라다 볼 수 있고 동쪽과 서쪽에는 송도만과 감천만이 자리 잡고 있어 풍광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산이다.

장군산의 지명유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경상·전라수군이 '釜山浦'에서 100여척의 왜군선단을 무찌른 대첩을 거두게 되는데, 이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 휘하의 정운 장군이 전사하게 되니 이를 기리기 위하여 이 곳 산을 '장군'의 산으로 불려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 남항대교



2008년 7월에 개통한 남항대교는 서구 암남동과 영도구 영선동을 연결하는 길이 1,941m, 폭 18.5~38.6m의 해상교량으로, 3,5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997년부터 약 10년간 공사를 추진했다. 남항대교의 개통으로 21세기 동북아 국제 물류 중심 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신항과 녹산공단, 명지대교, 북항, 광안대로, 수영대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항만배후도로를 완성하여 물류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서구와 영도를 가깝게 잇는 길이 뚫림으로서 서구와 영도를 동일 생활권으로 묶어주었다. 그리고 '신세기를 열어가는 관문'을 주제로 한 경관조명은 남항의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으며, 내항쪽에는 폭 3m의 산책로가 설치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복하면서 남항일원의 풍광과 부산의 해안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19. 부산공동어시장



남부민1동 691-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은 생산어민의 복리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1963년 11월 1일 '부산종합어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제1부두에 설립되었다. 1971년 1월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근거로 '부산공동어시장'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남항매립지에서 1971년 10월 15일 기공식을 가진 후 1972년 12월 20일에 준공되었는데, 1973년 1월22일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부산공동어시장은 부산시 소재의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대형기선저인대형기선저인망 수산업, 대형선망수산업, 서남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경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등 5개의 산업협동 조합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위탁판매사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960년대 연간 물량 5만여톤 정도이던 공동어시장은 현재 1일 최대 3,200톤(16만 상자)규모의 우리나라 제일의 산지 어시장으로 발전하였다.

20.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류 기능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대비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 및 21C 해양첨단도시의 기반 구축과 고용창출이라는 대 전제로 현재 한창 추진 중인 모지포 앞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동북아 최대 해양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로 도약할 이곳은 지난 1995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05년 말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완공을 시작으로 속속 관련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 수산물류 유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21. 부산 고등어축제



10월의 마지막(목, 금, 토, 일, 월)밤은 고등어 축제와 함께(10.25~10.29, 5일간)

2011년 부산시 시어로 고등어가 지정되면서 고등어를 테마로 한 짧은 기간 중 급성장한 전국 유일의 수산업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우수 수산기업홍보관, 고등어축제 주제관, 고등어전문요리관, 다양한 체험행사로 산업과 문화를 결합시킨 특화된 산업문화축제 장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의 기대감과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었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 및 체계적인 준비,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과 참여로 부산시 대표적 우수 산업문화 축제로 명성을 높였다.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의 수는 50만명, 지역경제 생산파급효과는 약80억원 추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체계적인 축제준비로 국내 타 수산 축제와 차별화된 다양한 체험콘텐츠 운영 판매관 운영, 고등어 전문요리관 신설, 요리경연 대회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 개발 등 고등어축제의 특화된 아이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축제에 대한 KNN,MBC,KBS 방송과 신문보도,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인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송도해수욕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22. 정월대보름 송도달집축제



우리고장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고 한 해 구민의 화합, 안녕,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송도달집축제가 1999년부터 송도문화축제위원회 주최로 매년 성대하게 열려 이젠 겨울 축제로서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였다

특이한 것은 달집의 크기는 해마다 그 해의 염원을 기리는 의미를 부여하여 년도에 맞춰 2012년의 경우는 20.12m로, 2013년도는 20.13m로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제의 장을 찾는 사람들은 보름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저마다의 소망 쪽지를 올망졸망 달집에 매달아 가정의 화평을 기원한다. 달집축제를 기다리는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달맞이제와 선박 퍼레이드, 민속놀이?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이젠 모든 관광객은 한마음이 된다

매년 정월대보름날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달님을 보고 소망을 빌던 가슴 뭉클한 느낌은 누구나 경험하지 않았을까? 밤하늘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달집은 찬란한 불기둥을 만들어 낸다. 참으로 장관이다. 이쯤 되면 관광객들의 환호성은 송도바다를 가득 메우고도 남는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이 개장 100주년을 맞이한다. 100주년 기념 정월대보름 송도달집축제를 떠올리며 내년을 기대해 본다

23. 현인 가요제

1999년부터 해수욕장 축제로 승화된 송도바다축제는 2003년 해상가요제로 절정을 이루다가 2005년에는 부산 출신가수 현인선생을 추모하는 제1회 현인가요제가 전국가요제로 열려 2012년도 8회째를 맞이한다. 매년 8월초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송도해수욕장 한국전쟁 당시 피난시절의 애환을 노래로 담아내며 피난민에 재기의 힘을 심어준 부산(영도) 출신의 한국 1세대 대중가수인 故 현인선생을 기리고자 제정되었다.

24. 송도해안 볼레길



송도해안볼레길은 왕복7km, 3시간 소요, 송도해안 야간달빛과 야간바다전경을 감상 할 수 있음
 갈맷길 중에서도 송도의 산책로를 "송도해안볼레길-볼레는 볼거리+둘레의 합성어"이라 부른다.
 송도해안 볼레길은 갈맷길 9개 코스중 제4코스 제1구간입니다.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에서 1.2km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암남공원,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이어주는 해안철제산책로 그리고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인 송도해안도로가 이 볼레길에 해당된다.





갈맷길

4 코스

남항대교를 건너며 바라보는 원경의 스카이라인과 남항의 홍등대와 백등대 안쪽 원도심과 자갈치 인근의 근경은 남항대교가 제공하는 팁이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송도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해수욕장으로 한때 한국 최고의 피서지였다. 이웃한 암남공원까지는 바닷물이 출렁이는 해안 산책로를 통해 혈청소가 있는 모지포까지 연결되며 감천사거리를 지나 감천항을 만난다. 이곳은 예로부터 입항하는 선박들이 물을 받아가던 소중한 마을이었으며, 지리적으로 부산포와 가깝고 다대포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였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군 주둔지, 한국전쟁 때는 영국군, 국방경비대(국군의 전신)가 주둔했던 역사적인 곳이었다. 술쉴 두송반도를 일주하면 해안지형의 백화점인 다대포에 낙동강과 남해가 반긴다. 부산시 전역에 산재해 있던 피혁 관련 산업의 공장들을 한 곳에 집중시킨 장림피혁공단에서는 약 50개 업체에 연간 2,000만 달러 이상의 피혁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코스 남항대교 ~ 암남공원 ~ 감천항 ~ 두송반도 ~ 물운대 ~ 낙동강하굿둑

길이 및 시간 36.3km / 13시간

난이도 중

구간	길이	시간	난이도	주요지점
4-1	13.0km	4	중	남항대교~송도해수욕장~송동해안볼레길~암남공원~감천항
4-2	12.5km	5	중	감천항~두송반도전망대~물운대
4-3	10.8km	4	중	물운대~다대포해수욕장~응봉봉수대 입구~낙동강하굿둑

주요지점 대중교통	남항대교	6, 7, 9, 9-1, 70, 71, 82, 85, 508
	송도해수욕장	7, 9, 9-1, 26, 30, 71, 96, 시티투어(순환형 코스(태종대방향), 을숙도자연생태 코스)
	암남공원 입구	7, 9, 9-1, 71, 시티투어(을숙도자연생태 코스)
	감천항	61, 96, 161, 서구2-2, 사하구1, 사하구1-1, 사하구14
	물운대	시티투어(을숙도자연생태 코스)
	다대포 해수욕장	2, 11, 96, 338, 1000, 사하구3-1, 시티투어(을숙도자연생태 코스)
	낙동강하굿둑	2

숙박업소
맛집

숙박	서구	상호	전화번호	상호	전화번호
		모아모텔	243-9360	아비송모텔	253-1684
		SKY모텔	241-0292		
	사하구	발렌타인모텔	205-2560	E모텔	202-8838
	맛집	서구	송도공원	245-2441	태성식당
장군성 숯불갈비			231-3392		
사하구		백두산횃집	261-4488	삼미횃집	262-9281

※ 「부산광역시 추천 중저가 모범숙박업소」, 「2011 부산의 맛」에서 발췌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발간)

주변볼거리



송도해수욕장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은 동양의 나폴리라고 칭송받을 만큼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한다.

주변 볼거리



암남공원 송도해수욕장에서 송도해안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암남공원이 나타난다. 해안의 소나무 숲 너머로 펼쳐진 바다풍경과 그 위에 떠있는 배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같은 아름다운 도심공원이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류 기능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수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 및 21C 해양 첨단도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모지포 앞 감천항에 건립된 국제 수산물류 무역기지이다.



몰운대 몰운대는 기암괴석과 해송으로 우거진 숲. 수려한 모래해안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붉은 노을이 안개에 번지는 눈부신 풍경은 특히나 유명하다.



다대포 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은 넓고 비교적 얇은 수심으로 여름철 가족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다대포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다대포 꿈의낙조 분수 시원한 물줄기와 화려한 조명, 웅장한 음악으로 어둑해진 다대포를 화려하게 수놓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음악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연이나 프로포즈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분수교가 진행되는 동안 소개해 주기도 한다.



아미산 전망대 낙동강하구 모래섬으로 이루어진 삼각주 지형, 철새, 낙조 등 천혜의 낙동강하구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전망대이다. 낙동강하구 모래톱의 변화 철새와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응봉봉수대 응봉봉수대는 지금의 다대포 북쪽의 아미산에 있으며 고려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통신시설이다. 임진왜란때 왜군의 침입시에 그 기능을 발휘한 바도 있어서 이곳은 국방의식의 양양이란 점에서 중요시되는 문화유산이다.



25. 감천동의 지명유래

감천동(甘川洞)의 옛 이름은 감내(甘內)로, 감(甘)은 "검"에서 온 것이며, 검은 "신(神)"이란 뜻이다. 천(川)은 "내"를 한자로 적은 것인데, 그 이전에는 "內"로 적혀 감내래리甘內來里이며, 지금도 지역의 노인들은 감천이라고 하지 않고, 감내(甘內 또는 甘來)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혹은 감천은 물이 좋아서 감천(甘泉) 또는 감천(甘川)이라 했고, 많은 선박들이 옛날에 이곳에 들어와서 급수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검내"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내는 한자어로 "천(川)·양(壤)·내(內)·내(乃)·군(郡)" 등으로 적히며 마을을 뜻한다.

따라서 감천(甘川)이란 말의 뜻은 신읍新邑이라는 뜻이다. 이런 이름을 갖는 지방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석묘支石墓가 발견되고 마제석기를 볼 수 있으며, 소도蘇塗와 같은 신성시되는 곳이나 부족사회의 권력자가 살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곳 감천동에서는 검내의 마을 이름에 걸맞게 지석묘 6기가 발견되어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으며, 부족사회의 어떤 권력자가 이곳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감천(甘川)이라 하여 모든 선박들이 이곳에서 급수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하나 이는 검내를 감천(甘川)이라 표기하고 천(川)을 천(泉)으로 잘못 표기한 것에 맞추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한다. 감천에서 선박들이 급수한 사실은 후세에 있기는 했으나, 그것을 들어 감천(甘泉)또는 감천설甘川說을 주장할 수 없다. 감천동은『동래부지(1740)』 방리조 서면西面에는 감천리라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7년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감천1, 2동으로 분동되었다. 자연마을로는 감천마을, 안골새마을, 태극도신양촌이 있었다.

26. 감천은 군사요충지였다

감천은 지정학적으로 왜구의 침입을 자주 받았던 곳이었다. 부산포와 가깝고 다대포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왜구의 노략질이 극심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마을이 패촌이 되다시피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고기잡이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던 어촌의 순박한 어민들의 한 많은 사연이 많았을 것이다. 외침이 많았던 대한민국에서 아버지를 잃고 부인을 잃고 자식을 묻어야 했던 민초들의 서러움이 삼천리방방곡곡에 없는 것이 없겠지만, 감천은 더욱 심하였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이 주둔했다. 이것도 지정학적인 이유였다. 해방 후 한국전쟁 때는 영국군이 주둔했다. 그만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는 증거이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에 한동안 국군의 전신이었던 국방경비대까지 있었다 하니 군사요충지였음은 분명하다.

감천은 창검과 총대포가 항상 놓여져 있었던 살벌한 동네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문화마을, 영화마을 등 문화와 생명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동네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27. 태극도 마을(감천문화마을)

한국전쟁때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에 의해 판잣집과 초가집 40여개가 들어선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됐다. 이후 1955년 후순 중구 보수동에 본부를 둔 태극도 신앙촌 3,000여 가구가 이곳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일명 '태극도 마을'로 불리게 된다. 1980년대만 해도 인구가 3만명에 달했던 이곳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인구가 줄기 시작해 지금은



〈태극도 마을〉

1만 1,600천명 정도 살고 있다. 빈집도 늘어 군데군데 300여채에 달하는 등 갈수록 슬럼화되는 상황이다. 이곳에는 태극(太極)을 받들며 도를 닦아 성인이 된다는 신흥종교인 태극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촌을 이루어 1958년 감천2동이 생기게 되었다. 신자들이 이곳에 그들의 신앙촌을 만든 것은 부산으로 피난 온 전국의 신자들이 교주(敎主)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든 한국전쟁 기간동안의 일이다. 천마산 옥녀봉 자락에 빼곡히 들어선 태극도 마을이 계단식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조그마한 짜투리땅이라도 생기면 고층건물을 올리는 도심지의 풍경과는 또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운치를 더하고 있다.

태극도는 1918년 조철제가 증산사상에 기초하여 세운 종교이다. 조철제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김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강일순의 이야기를 듣고 노고산에 입산하여 수도하였다. 1916년 귀국하여 충남 안면도를 근거로 포교하다가 강일순의 누이 선돌부인을 맞이하여 무극도(無極道)를 세웠다. 1923년부터 3년간 정읍군 태인면 태흥 도창현에 건영을 하여 큰 교당을 짓고 무극대라고 고쳤다. 1929년에는 10만명 교인으로 번창하였다.

1935년 일제의 철거령으로 사라졌는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2층 넓은 한옥 기와건물에도 4, 5층 높이의 두개 건물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그리고 진업단이라는 신도단체를 만들어 간척사업을 통해 안면도에 20만평의 농경지와 원산도에 염전을 만들었다. 또한 벌채와 채광 등 사업을 경영하는 등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1936년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해산령'으로 교당이 헐리고 본부가 해체되고 교세가 크게 줄었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다시 포교활동을 시작하여, 1948년에 보수동 1가 21번지에 본부를 두고 태극도로 교명을 바꾸었다. 지금은 태극도 본부가 있었던 '태극도보수도정'이란 현판으로 보존되고 있다.

1948년 막 자리잡은 태극도 본부가 옮겨지게 된 것은 부산역전과 국제시장 등 주위의 대화재와 피난민촌 정비 작업으로 이전을 서두르게 되었다. 부산시에서는 영도구 청학동으로 옮길 것을 권했으나, 재정난으로 매입이 어렵게 되자 1955년에 국유지인 천마산 중턱으로 옮겨서 지금의 터전을 마련했다. 천덕동 감내라 불렸으며 그 해 8월 800세대 4천여 명이 이주하였고, 계속 교세 확장으로 3,000세대 1만여 명의 신도를 모아 신앙촌을 형성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또, 집을 지을 때 두개의 지침이 내려졌다고 한다. 앞집을 막지마라, 길을 막지말라는 것이었다. 이 지침은 13세기 알카라 문명의 미추박추 마을을 지을 때와 같은 지침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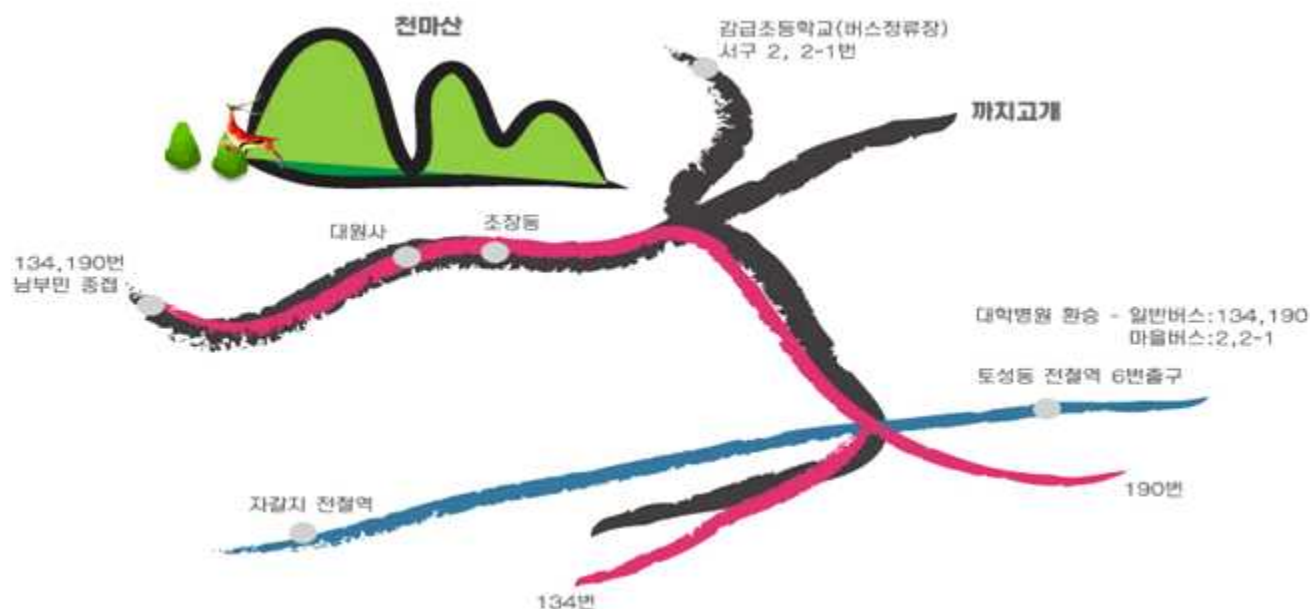
어린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천덕국민학교를 세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교육했다. 회의실 20여개를 교실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주.야간 학생 800여명을 가르쳤다. 3년간 계속되다가 초등학교인 당시 감천국민학교로 보내고 중학생을 맡았다가 1963년에 허가를 받아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었다. 오래가지 못하고 이도 1968년에 재정난으로 폐지되어 이웃 학교로 넘겨졌다. 교사는 태극도 간부와 신도 가운데서 선택되어 교육했다. 태극도 본부 생활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어가기가 어려워 1956년에 미곡창고를 운

영했다. 전라도와 김해에서 구매해 도정한 뒤 판매하여 이익금을 남겼다. 또 1957년에는 감만동에 직접 도정공장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기했다. 그러나 이도 잠시 4.19와 5.16군사 쿠데타 때 재정 분란이 생겨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감천2동 태극도 희망촌은 이제 '부산의 맞추픽추'로 불리며 골목길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2억 2,000만원으로 문화예술촌이 조성된다. 마을의 빈집을 예술창작실 혹은 갤러리로 개조하거나 북카페, 식당, 민박집 등으로 만들고, 마을공터와 옥상을 생태정원으로 바꾸는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미로 같은 골목길을 다니며 역사와 생활상, 예술작품을 발견하는 이색관광 상품도 만들 계획이다.



28. 천마산(324m)



석성산에는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는데『경상도지리지』에 '석성봉화대가 동쪽으로 30리 거리에 황령산 봉화대를 바라보며, 서쪽 110리 거리에 김해 봉화대를 바라본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으로미루어 볼 때 현재의 천마산이 과거에는 석성산이었던 것 같다. 天馬山이라는 산명은 옛날 이 곳은 초원이 우거져서 일찍이 목마장牧馬場이었다는 것과 하늘에서 용마가 내려왔다는 전설에서도 나왔음직하다. 전형적인 노년산지의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산록이 완만하고 활엽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산에 오르면 남향이 한눈에 들어온다.

천마산은 부산 서구 남부민동과 사하구 감천동의 경계에 솟아 있는 산으로 높이는 324m이다. 정상에는 동네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서구에서 조성한 '천마산조각공원'이 자연과의 절묘한 조화 속에서 산을 찾는 이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만끽하게 한다.

29. 송도해수욕장 차별화된 풍경 6가지?

다른 해수욕장과 차별화된 독특한 풍경이 있다....



첫번째, 가수 '현인'의 동상이 있는 '현인광장' 이 있다.

부산에서 태어난 국민가수 '현인'씨를 기리기 위해서인데요. 2007년에 만들어졌다.



두번째, 바다가운데 4가지의 조형물이 있다.

이것은 2007년에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해상조각작품인 고래조형등대다 등대같지 않은 등대라고 할까? 야경은 정말 멋지다.



세번째, 항구가 가까이 있어 배가 정박해 있다.

남항이라는 항구가 가까이 있어 저 멀리 큰 배가 보인다.



네번째, 거북섬이라는 작은 섬과 연결되는 다리가 있다.

거북섬이라고 거북이 등짝 모양 같은 거북섬에 연결되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1960년대에는 구름다리였는데 현재는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다.



다섯번째, 언덕구조의 위쪽에 높은 빌딩이 있다.

광안리나 해운대를 보면 해안도로변에 건물들이 많은데 도로와 같은 높이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송도에서는 저렇게 높은 지대에 높은 빌딩이 있었습니다. 20층 높이라면 사실 30층 쯤 되어 보였습니다. 전망 하나는 기가 막히다.



여섯번째, 바다 가운데 방파제를 설치해 놓았다.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다 가운데 방파제를 설치해 놓았다고 한다.

송도의 지질

푸른 바다와 시루떡을 쌓아 놓은 것 같은 해안절벽,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송도 해안은 중생대에는 호수로 이어지는 강이 흐르던 건조한 평원 지대였다.

다대포 층이라 불리는 현재의 지층이 쌓일 당시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난 건조한 가운데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었다. 오랜 가뭄이 이어지면서 * 켈크리트라 불리는 석회질 지층과 붉은 퇴적층이 형성되었고, 이후 퇴적환경이 점차 호수 환경에서 화산활동이 우세해지는 퇴적환경으로 전이되면서 퇴적층에는 화산성 퇴적물이 포함 된다.

화산활동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에 기인하는 단층활동으로 대규모의 역암이 일시적으로 공급되어 송도역암층이 형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해안퇴적구조를 이루고 있다.

* 켈크리트 : 토양이나 퇴적물에 함유된 석회질 물질



암남공원 자연환경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보고 용역보고서(96.12~97.11월, 동아대 농업자원연구소)
암남공원 주변은 100종의 야생화와 370여종의 식물이 분포

골무꽃, 평의바람꽃, 노루귀, 백선, 복수초, 석류풀, 으아리, 현 호색, 줄사철나무, 해국, 오리나무, 갯고들빼기, 보리밥나무, 수국, 무릇, 갯까치수영, 송악, 남천, 구절초, 굴피나무, 곰솔, 후박나무, 천선과나무, 동백나무, 향나무, 반디지치, 칩, 말오줌때, 청미래덩굴, 생달나무 등





천혜의 자연림과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암남공원을 출발하면 테크길, 구름다리 등으로 연결된 송도해안볼레길을 따라 걷게 된다.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을 지나 최근 개통된 남항대교를 통과하게 되는데 남항대교에서의 조망이 뛰어나다. 그림자조차 끊어버릴 정도로 빠르다는 “절영마(絶影馬)”를 타는 기분으로 절영해안산책로를 지나면 중리산과 태종대가 연달아 마중나온다. 태종대는 한반도의 모든 해안 비경이 물려있다고 할 만큼 기기묘묘하다. 영도등대 아래 높이 100m가 넘는 수직단애 위에 절묘하게 놓인 산책길이 백미. 간식은 삶은 고구마가 제격이다. 조선 영조 때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조엄 선생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가져와 처음으로 심은 곳이 영도이다.

찾아가는 길

시작점인 암남공원은 시내버스 9-1, 7번을, 종료점에서는 시내버스 101번을 이용하면 된다.

주변관광지



암남공원



송도해안산책로



송도해수욕장



남항대교



태종대

